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5월 7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2018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 수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의 근본 사상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44명의 주민들은 평소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와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문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로부터 효는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가족윤리 중 최대 덕목으로, 여러분이 늘 어



르신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에 강북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의원 모두는 강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더욱 높은 위상을 영위하여 강북구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

44명의 주민들 선정해 표창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5월 4일 본회의장에서 2018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 수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의 근본 사상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44명의 주민들은 평소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와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문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로부터 효는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가족윤리 중 최대 덕목으로, 여러분이 늘 어



▲ 박문수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효자효부 수상자들이 함께한 모습.

에 강북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의원 모두는 강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더욱 높은 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기적적인 행운을 기원합니다.”고 축하 인사를

강북구의회, 효자·효부 표창 수여

수상자 44명...경로효친 미풍양속 계승발전 공로



▲ 효자·효부 선행자 표창 시상식 후 기념촬영.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2018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 수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의 근본 사상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44명의 주민들은 평소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와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경로효친

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강북구의회,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2018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 수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의 근본 사상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44명의 주민들은 평소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와 가족

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시상식이 끝난 후 간담회를

통해 격려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박문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로부터 효는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가족윤리 중 최대 덕목으로, 여러분이 늘 어르신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기에 강북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원 모두는 강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더욱 높은 위상을 영위하여 강북구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유영일 기자